

TO : 독자부고란 담당 기자님께

FROM : 안경화(장애인 일할 권리 찾기 연합 홍보부장, 3474-1560, 018-321-3301)

총 2매

독자 부고란에라도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나는 장애인 일할 권리 찾기 연합(이하 일권연)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호경입니다. 우리 실업 장애인 9명(일권연 회원)은 지난 11월 17일부터 한강이 보이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외벽에 천바를 치고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밀어닥치는데 왜 단식농성이냐구요? 맞습니다. 한파가 밀어닥치는 겨울이 다가왔는데, 우리는 일거리가 없어, 어차피 길거리를 방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한파를 맞으며 단식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일거리를 우리 스스로 찾기 위해 추위 속에서 텅빈 속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따스한 물 한모금보나, 더운 밥 한그릇 보다 우리에게선 일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서 당당하게 세균을 내는 국민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장애인은 남에게 손을 빌려 빌어먹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나마 IMF가 우리에게선 호기였습니다. 실업 장애인이라는 용어도 사회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깐요. 어쨌든 우리는 IMF때문에 만나게 되어 장애인 반으로 회원 100여명이 일권연이라는 자조조직을 만들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 장애인 스스로 나섰습니다.

정부 당국은 우리가 세입 없음을 알고 그 대책(장애인고용촉진법)을 세웠지만,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고 중증장애인이라는 발만 들어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상담도 받지 않으려고 할 뿐더러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설혹 봄이 될 불편한 성중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고용율 0.54%라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이제 그 실효성에 있어서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33살의 시체장애인입니다.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이런 나쁜 바라봤을 때는 결코 사기 기업들의 인공을 적함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저와 같은 사람은 결코 그 법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에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마련한 [장애인 직업재활법]은 이런 나와 같은 사람들이 '고용' 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 '직업'

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법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은 시원고용이라는 형태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에 고용 혹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대로 정쟁으로 세월을 흘려보내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렇다할 묘수볼 찾지 못한 채 장애인 직업 재활법 제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하여 우리에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더 나아가 장애인도 세금을 내는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맞아가며 난식농성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록 [장애인직업재활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부탁드립니다.